

전통문화콘텐츠의 탈구조주의적 번역방법 시론: 텍스트와 영상문학에 나타난 전통 활쏘기의 오역 및 왜곡원인 분석 및 대안 제시

이 노 신
(호서대)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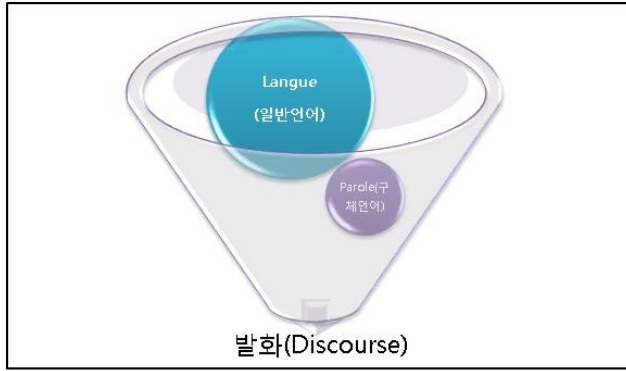
번역은 번역가의 광범위한 자료수집의 정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배경지식 확보와 해당분야에서의 전문적 경험의 축적 정도에 따라서 결과물의 질적 수준이 달라 질 수 있다. 결과물의 질적 수준은 번역에 사용된 어구의 정확성(accuracy)과 적절성(appropriacy)을 바탕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번역의 대상물이 인류문화의 기원과 궤도를 같이하여 일만 년에 가까운 장구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면, 이에 대한 번역작업은 상당히 복잡적이며 복잡성을 떨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런 경우의 번역작업에 있어서는 오랜 시간 속에서 광범위 하게 조성된 대상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언어적 배경, 문학적 배경, 예술 적 배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정확하고도 적절한 번역을 위해서 번역자는 문화콘텐츠를 번역할 때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의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문화적 중재자로서 정확하면서도 적절한 번역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Nam 2008: 152). 적절한 번역전략이란 번역가는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중첩된 문화적 요소들을 발견해 내야하며(최희섭 2010: 273), 중첩된 것들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원인분석을 통하여 창의적이며 효과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언어에 내재된 문화콘텐츠의 번역은 소쉬르가 제시한 랑그(langue)와 파롤(parole)의 정의를 바탕으로 랑그에 치중하는 제품설명서나 뉴스기사와 같은 실용적 텍스트의 번역작업(이지연 2010: 86)과는 달리 파롤(parole)에 내포된 개별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코드(the cultural codes)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탈구조주의 비평가 중의 한 사람인 데리다(Jacques Derrida 1997: 10)는 소쉬르의 랑그와 파롤 이론보다 더 구체적인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이론¹⁾에 주목하면서 언어 그 자체는 의미가 부여되기 전부터 기호적 형태(the semiotic form)로서의 기표로서 존재하며, 그러한 기표의 형태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의미 즉 랑그와 같은 일반적 의미와 파롤과 같은 구체적이며 개별적 의미가 함께 존재한다고 보았다.

1) 랑그와 파롤뿐만 아니라 기호학적(semiotic) 관점에서 기표와 기의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쓴 것도 소쉬르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개념은 야콥슨(Roman Jakobson)이나 아이헨바움(Boris Eichenbaum)과 같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 및 무카르쾅스키(Jan Mukařovský) 같은 프라하학파에 의해 의미전달 언어체계인 발화(discourse)적 관점에서 구조화되었고, 이후에 데리다와 윌리엄스(Raymond Williams),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과 같은 탈구조주의자들에 의해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사회역사적, 문화적 연관성의 분석을 통해 재정립되었다.

〈표 1〉 소쉬르가 분석한 발화(의미전달 언어체계)의 과정



위의 깔때기형 다이어그램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 개인이 의미 있는 발화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깔때기 속에서 랑그와 파롤이 혼합되어 의미전달 언어체계인 발화로 나오게 되는데, 소쉬르에 있어서 언어학의 진정한 대상은 개인 간의 언어차이인 파롤보다는 일반적 언어체계인 랑그에 있었다(Saussure 2000: 21).

그러나 문화 중에서도 전통문화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거쳐 각 민족이 자기 고유의 형태와 체계를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개별적 언어 차이를 나타내는 파롤의 역할 및 의미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영어에서는 people을 집합명사로 취급할 때 민족의 의미가 된다. 따라서 a people은 하나의 개별적인 민족으로서 단수취급하며, 이에 대한 복수 형태로서 peoples를 사용한다. 이는 각 민족을 단수로 취급하여 마치 한 개인(an individual)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한 민족이 가꾸온 고유의 전통문화코드는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파롤 체계/코드(the collective parole system/code)라고 볼 수 있다.

활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랑그로서 중요하지만, 전통 활을 언급한다면 그때 랑그는 활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각 민족 고유의 문화콘텐츠적 요소들을 표시 해 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활이라는 단어의 랑그적 요소만 가지고는 양궁과 한국 전통 국궁, 영국의 장궁, 일본 전통 활이 가진 고유의 특성과 차이점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각 민족 고유의 전통 활의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파롤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

은 세계 전통 활쏘기의 문화콘텐츠적 요소에 대한 영한/한영 번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따라서 랑그적 요소가 더 강조 되는 실용텍스트 번역과는 달리 각 민족 고유의 집단적 파롤 체계를 간직한 전통문화콘텐츠를 번역 할 때는 앞서 논의된 소쉬르의 랑그와 파롤이론이 효과적으로 적용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주의적 언어학에 기반을 둔 번역방법을 탈피하는 탈구조주의적 번역 방법이 필요하다. 랑그와 같은 거대발화(the grand discourse)²⁾로는 전통문화콘텐츠가 내포한 개별적이고도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는 구체적 발화(the specific discourse)³⁾를 도저히 나타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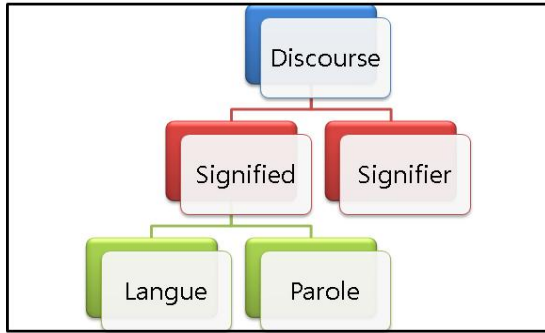
해체주의자인 데리다, 문화이론가인 윌리엄스, 신역사주의 비평이론가인 제임슨의 탈구조주의적 언어이론은 그때까지 강조 되었던 랑그의 중요성보다는 개별적 차이를 나타내는 파롤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Derrida 1997: 27, Jameson 1981: 17, Williams 1983: 131). 그들은 기호학적 체계를 도입하여, 언어적 기호형태인 기표와 거기에 실린 의미인 기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랑그와 파롤은 기의의 하위범주에 두었다.

예를 들어 활은 언어학적 기호형태로서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으며, 영어의 bow, 한자의 弓, 일본어의 弓, 프랑스어의 arc, 스페인어의 arco, 독일어의 bogen, 아랍어의 قوس와 같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기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표들에는 전부 거대발화인 활이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랑그와 더불어 그 활에 접목된 각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콘텐츠를 수식하는 구체적 발화인 파롤이 함께 존재한다.

2) 동의어: 거대담론

3) 동의어: 구체담론

〈표 2〉 탈구조주의적 분석방법에 의한 발화과정



따라서 국궁⁴⁾을 비롯하여 세계 전통 활쏘기와 관련된 각 민족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영한/한영 번역 한다는 것은 번역가가 랑그와 더불어 피롤의 미묘한 차이들을 문화적 중재자의 입장에서 원천언어와 목표언어가 지닌 문화적 전통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능성이나 실용성과는 거리가 먼, 그러나 매우 소중한 인류의 문화적 자산을 기록적으로 올바르게 보존하고 지켜 나갈 수 있다.

필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세계최초로 개최된 세계민족궁대축전⁵⁾의 국제교류 초청 및 국제학술세미나 조직 및 운영의 책임을 맡아 왔다. 그 속에서 세계 약 50개국과 교류하며, 세계 31개국에서 초빙된 200여명의 각 민족 고유의 활을 쏘는 전통 궁사들 및 전통 활과 화살을 제작하고

4) 국궁(國弓)은 양궁(洋弓)에 대치되는 용어로서 한국 전통 활쏘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양궁과 구분하기 위해 최근에 만들어졌으며, 원래는 역사적 전통적으로 궁술(弓術)이라는 용어를 써 왔다. 요즘 사용하는 궁도(弓道)라는 용어는 원래 일본 전통 활쏘기를 가리키는 큐도(弓道)를 우리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무질서하게 혼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 할 때 차라리 활쏘기라는 순수 우리말에 전통이라는 말을 더하여 ‘전통 활쏘기’ 또는 ‘한국 전통 활쏘기’, ‘우리 전통 활쏘기’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전통 활쏘기를 번역 할 때 가장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자체적인 용어정립도 아직 제대도 안 된 경우이다. 가장 커다란 이유로서는 일제시대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말살 대상으로서 우리 전통 활쏘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5) 주최: 국민생활체육회, 주관: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이노신 2008, 2009)

있는 궁장⁶⁾들과 학술적으로 가깝게 소통하며 그들이 발표한 논문들을 영한/한영 번역 출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속에서 세계 전통 활쏘기의 전통적 역사성과 높은 문화적 가치에 매료된 자신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은 경험 속에서 문화중재자로서의 번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광범위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적 번역작업에 있어서는 각 민족 고유의 활쏘기에 담겨 있는 파물적 차이점을 탈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수행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작업활동 속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번역을 위한 올바른 용어정립 및 전통 활쏘기와 관련한 번역에 반드시 필요한 전통문화콘텐츠의 흐름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세계 각 민족의 역사 문화적 전통의 숨결이 스며든 세계 전통 활과 화살의 문화 콘텐츠적 요소들을 발견하며 이러한 것들을 번역 할 때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용어들을 영한/한영의 번역체계를 탈구조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분석 정리해 보고자한다.

2. 본론

2.1 랑그 중심적 번역 오류 및 탈구조주의적 대안

2.1.1 세계 전통 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말의 활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는 기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표는 각 민족의 언어체계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표의 다양성만큼이나 거기에 접목된 파물들은 더 다양하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8,500년의 전통을 지닌 각 민족들의 활쏘기는 이와 같이 오랜 시간 속에서 다양한 고유의 문화적 코드가 접목된 것이다.

6) 그들은 전문 전통 궁도인 또는 궁장이면서도 대학교수, 의사, 치과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른 전문 직종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터키의 유명한 궁장인 메틴 액소이(Metin Aksoy)는 의학박사로서 외과전문의인데, 터키 전통 활의 구조 및 재질을 연구하기 위해 의학적 기술을 적용 MRI 및 CT 촬영을 통해 분석한 자료를 2008년 제 2회 세계민족궁 대축전 국제학술 대회에서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오랜 전통문화콘텐츠는 전통 활쏘기에 각 민족마다 지닌 차이점들을 적절하게 살려 줄 수 있는 파롤 중심적 번역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전통 활의 계보와 종류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 사용되는 전문적 용어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세계 전통 활은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아시아 대륙 활(Asian continental bow)⁷⁾과 유럽 활(European bow) 그리고 원시 활(Primitive bow)이 그것이다. 본 장에서는 세계 전통 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시아 대륙 활과 유럽 전통 활을 중심으로 오역 또는 오류의 사례 및 원인 분석을 하며 이에 대한 파롤 중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한 아시아 대륙 활의 특징은 제작방법 및 재료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합성궁(合成弓)이자 역궁(逆弓)이며 또한 각궁(角弓)으로 불린다. 이것들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아래와 같다(김기훈 2007, 유세현 2008, 이노신 2009).

〈표 3〉 아시아 전통 대륙 활의 명칭 한영/영한 번역

한국어	영어
합성궁(合成弓)	the composite bow(전통 아시아 대륙 합성궁) the laminated bow(유럽형 합성궁) the backed bow(유럽형 합성궁)
역궁(逆弓)	the recurve bow, the recurved bow
각궁(角弓)	the horn bow(한국 전통 활)

이러한 용어는 원래 유럽 활이나 원시 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아시아 대륙 활에만 존재한다. 여기서 주목 할 것은 활이라는 기표에 접목된 활의 랑그적 번역 즉 활에 대한 영어 대응어인 bow는 아시아 대륙 활을 가리킬 때 그 활이

7) 아시아 대륙 활은 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고유의 전통 활이 있는데 유미(弓)라고 부르며, 활대가 유럽식 장궁보다 더 길어서 영어번역으로는 편의상 Japanese long bow 또는 Samurai long bow라고 한다. 그러나 유럽식 장궁과는 제작 방법, 재료, 성능, 크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English long bow와 Japanese long bow는 단지 영어 번역명만 유사할 뿐이다(Kuruso 2010: 221-25).

가지고 있는 전통적 특징과 전통문화콘텐츠를 전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시아 대륙 활은 따라서 활이라는 명칭 하나만을 가지고 번역한다 하더라도, 기표에 접목된 랑그보다는 파를을 더 중시함으로써 아시아 대륙 활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지니게 된 고유한 전통문화콘텐츠를 정확하고 때로는 적절하게 번역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야 유럽에서도 아시아 활의 우수성을 알게 되어 유럽형 합성궁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합성궁은 아시아의 합성궁과 제작방법과 재료가 다르다. 따라서 위의 도표와 같이 합성궁이라도 전통적 아시아 대륙 활은 the composite bow⁸⁾라고 번역되지만, 유럽형 합성궁은 일반적으로 the laminated bow⁹⁾, the backed bow라고 번역된다(Greenland 2009: 134).

아시아 대륙 활의 범주에 속하는 활은 아래와 같이 한영/영한으로 번역된다(김기훈 2007, 유세현 2008, 이노신 2009).

〈표 4〉 아시아 전통 대륙 활에 대한 각 민족 중심 명칭 한영/영한 번역

한국어	영어
한국활	the Korean bow, the horn bow
만주활	the Manchu bow
몽골활	the Mongolian bow
중국활	the Chinese bow
중앙아시아활	the Central Asian bow
터키활	the Turkish bow
헝가리활	the Hungarian bow
스키타이활	the Scythian bow
이란활	the Iranian bow
중동활	the Middle East bow
고대 이집트활	the ancient Egyptian bow
고대 그리스활	the ancient Greek bow

8) 아시아 대륙 활은 전통적으로 동물(소, 사슴, 산양 등)의 힘줄과 목재(박달나무, 대나무, 뽕나무, 오리나무 등), 동물의 뿔(물소, 황소, 큰뿔 산양 등)과 같이 3가지의 서로 다른 재료를 민어나 조기의 부레로 썬어 만든 풀로 붙여 만든다.

9) 유럽형 합성궁은 최근에야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활대의 재료로 쓰이는 주목을 들로 썬 후 그사이에 외국에서 수입한 얇게 썬 북미산 물푸레나무나 아시아산 대나무를 화학 풀로 붙여 제작한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도 아시아 대륙 활을 사용했었다는 점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고대 그리스 유적지에서 이러한 아시아 대륙 활이 발굴되고 있는데, 고대 이집트는 한때 아시아계 히소스(Hyksos¹⁰⁾)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은 이후로, 그리고 그리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아시아 대륙 활의 제작방법 및 사용법을 익히게 되었다.

현재 등가적으로 사용되는 아시아 대륙 활의 모양과 각 부위의 기능에 따른 공통적 명칭에 대한 영한/한영 번역은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 전통 활 각부위 명칭에 대한 랑그중심적 번역사례

한국어	영어
심고 ¹¹⁾	nock
고자	ear(s)
양양고자	end-ear(s)
뺨앞	belly
절피	serving
쥬통	grip(handle)
시위	bowstring(string)

그런데 이러한 기능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는 랑그 중심적 번역은 단지 해당부위의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 할 뿐이지, 실제로는 상당한 오역 및 오류가 존재한다. 이는 아래와 같이 상기번역이 각 용어의 어원적, 역사 문화적 기원 및 전통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심고 : 양양고자 옆에 소의 힘줄로 둥글게 댄 고름

nock : 줄을 또는 줄에 걸기위해 딱딱한 물체의 표면을 좁고 깊게 판 부분. 영어에서는 활대 끝에 패인부분과 화살촉 끝에 패인 부분을 전부 nock이라 하기 때문에, 번역할 때 혼동을 준다.

10) Hyksos는 원래 고대 이집트어인 Heqa khasewet에서 유래된 말로 이민족 통치자를 의미한다.

11) 일부 최근에 간행된 책에서는 심고라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원을 제대로 따지지 못한 주관적 표기이다.

놀랍게도 현재까지 한국에서 간행된 전통 활과 관련된 모든 텍스트에서 심고는 전부nock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오역이다.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필자는 심고와nock은 모양과 기능에서 상호간에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서양 전통 활에는 심고에 해당하는 부위가 없다.

2. 고자 : 어원이 고재인데, 고는 심고의 고처럼 웃고름의 고름과 의미가 동일하며, 재는 넘는 고개를 의미한다¹²⁾. 따라서 고자는 심고를 붙인 활대 끝 부분의 비탈지거나 휘어진 곳을 말한다. 역궁의 특징은 활대의 끝부분이 비탈지고 휘어졌는데 이 부분을 고자라고 한다.

ear(s) : 활대의 양쪽 끝 휘어진 부분이 귀처럼 생겼다고 영어에서는 한 쌍으로 된 물건¹³⁾은 복수단어로 취급하여 s를 붙이는 것처럼 활대 끝 양쪽에 있으므로 보통 복수형인 ears로 쓴다¹⁴⁾.

4. 양냥고자 : 활대의 양 끝에 시위를 걸 수 있도록 뽀족하게 만든 부분

영어에서는 양냥고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 그나마 시위를 건다는 공통된 기능을 따진다면 이 부분을nock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그러나 아시아 대륙 활의 양냥고자는 단순히 서양 전통 활의nock과 같이 시위를 거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말을 달리며 활을 쏠 때 고자 및 심고와 더불어 시위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 주었다.

3. 뿔앞 : 활대의 안쪽을 뿔앞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전통 아시아 합성궁에서는 활대의 안쪽에 동물의 뿔을 붙여 탄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각 민족마다 사용하는 뿔의 종류가 다른데, 한국은 몰소 뿔, 중국은 황소 뿔, 몽골은 큰뿔산양의 뿔, 터키나 헝가리는 황소 뿔, 이집트는 암소 뿔 등을 사용했다.

12) 예) 박달재 -- 박달고개

13) 쌍으로 된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 예 : shoes, socks, jeans, pants, eyeglasses,

14)nock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하나 씩 있으나, 습관적으로 단수형인nock을 사용한다.

belly : 영어에서는 어떤 물건의 볼록한 부분을 belly라고 한다. 항아리의 볼록한 부분도 belly라고 한다. 활대에서도 이 부분이 볼록하므로 belly라고 한다.

4. **절피** : 화살의 오늬를 걸 수 있도록 활시위의 실로 감은 부분
serving : 화살을 걸어 발사하는(serve) 장소라는 의미

5. **쥬통** : 어원은 쥬통 즉 손으로 쥐는 통을 의미한다.
 활대를 손으로 쥐어 잡는 곳이다.
grip(handle) : 쥐는 곳, 손잡이의 뜻으로 쥬통과 의미가 상통한다.

6. **시위** : 어원은 시울이며, 줄 또한 여기서 파생되었다. 시위와 줄은 모두 원래 어원이 시울이다.
string : 줄의 의미로서 시위와 의미가 상통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6번을 제외하고는 활의 각 부위가 지닌 기능적 공통성만을 바탕으로 한 랑그 차원의 번역은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어원을 비롯한 문화적 전통성과 역사성을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1번의 심고와nock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오역이다. 심고는 소 힘줄을 사용하여 고름처럼 둥글게 만들어 고자부분에 댄 것을 말한다. 대륙성 기후의 아시아 지역은 겨울이 매우 춥고 건조하여, 활대의 중간에 칼집을 내면 활이 사용 중에 부러지거나 쪼개진다. 또한 활대자체가 서로 다른 3종류의 물질로 만든 합성궁이므로, 유럽의 단성궁처럼 직접 활대 끝에 흙(nock)을 파서 간단히 시위를 걸지 않았다. 그 대신 활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자에 소 힘줄로 고름을 만들어 붙여 그 위로 시위가 지나가도록 하여, 화살을 발사한 후 시위에 남아 있는 심고에서 흡수하여, 충격이 활대에 전달되는 것을 막아 주었다. 그럼으로써 활대를 보호하며, 동시에 발사 후 시위의 진동을 제거하여 달리는 말 위에서 연속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 전통 활의 명칭은 고유한 아시아 대륙 활인 합성궁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원래가 합성궁이 아니라 단성궁인 유럽활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어식 명칭은 아무리 등가적으로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합성공의 문화적 특징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여, 심각한 오역 및 오류를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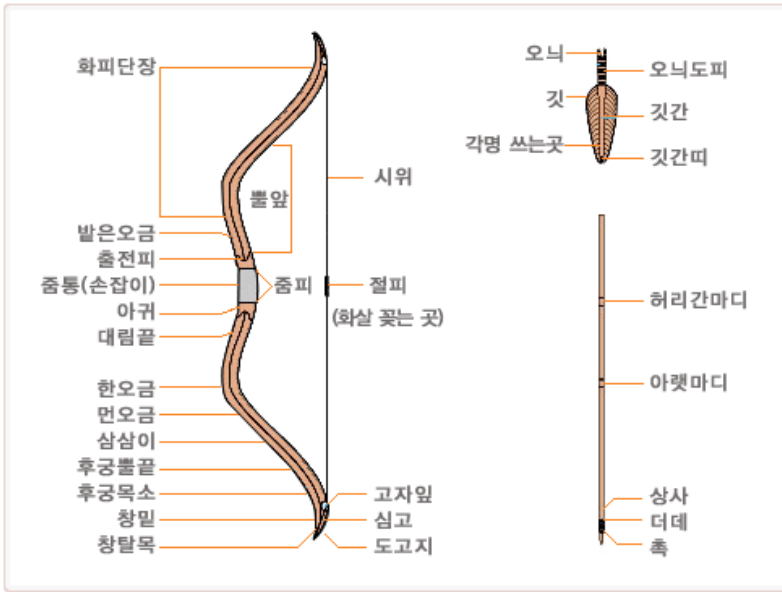
이러한 전통 문화적, 역사적 차이점을 반영하여 아시아 합성공의 각 부위 명칭을 다음과 같이 영한/한영 번역할 수 있다.

〈표 6〉 한국 전통 활 각 부위에 대한 파를 중심적 번역의 예

한국어	영어	
	기존(랑그 중심)	파를 중심 새 번역
심고	nock	support ring
고자	ear(s)	string anchorages
양양고자	end-ear(s)	anchorage ends / nock
뿔앞	belly	horn front
절피	serving	serving
잡통	grip(handle)	grip(handle)
시위	bowstring(string)	bowstring

매우 흥미로운 점은 아시아 대륙 활을 사용해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독 우리민족이 활과 화살의 각 부위 명칭이 가장 세분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까지 확인한 바로는 세계에서 활화 화살에 대한 명칭을 가장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민족이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민족에게 전통 활과 화살은 역사 문화적으로 실생활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것은 유제품과 낙농품이 발달한 서양에서 치즈의 종류와 명칭이 매우 다양한 반면 치즈를 전혀 일상생활에서 먹지 않았던 우리민족에게는 치즈에 대한 등가적인 대응어조차 없어서 치즈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치즈가 우리에게 처음 소개 될 때만 해도, 치즈는 노란 네덜란드식 구다(Gouda)치즈가 전부였으며, 그로 인하여 프랑스나 스위스, 벨기에, 이태리와 같은 다른 민족 전통의 다양한 맛과 형태를 가진 치즈들의 특성은 전부가 (네덜란드) 치즈라는 기표와 랑그에 묻혀 전혀 구별되지 못했었다. 이와 매우 유사한 오류가 아시아 전통의 대륙 활을 서양식 활에 등가적으로 번역 했을 때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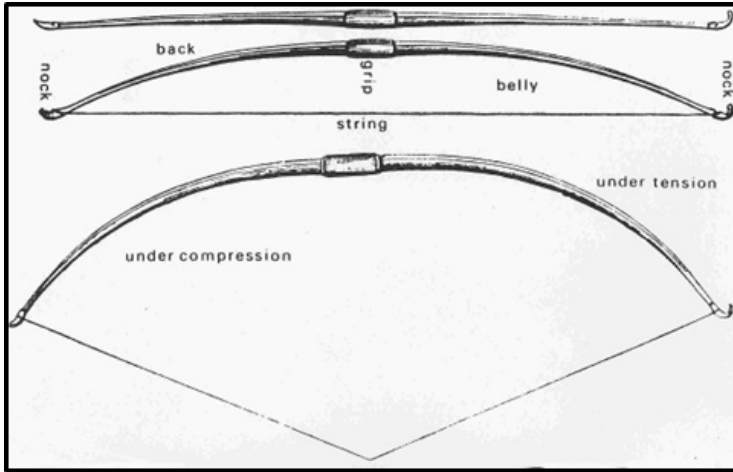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전통 활과 화살의 각 부위 명칭¹⁵⁾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전통 활에는 전부 20 종류의 세부적 부위 명칭이 있으며, 화살에는 총 11 종류의 각 부위 명칭이 있다. 이러한 명칭은 제작 방법, 재료, 위치 또는 모양에서 기원한다. 이와 같이 아시아 대륙 활을 포함하여 거기에서 기원한 우리 전통의 활과 화살을 제작방법과 재료 및 기원이 다른 유럽 활에 랑그의 차원에서 등가적으로 번역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의미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거꾸로 유럽 전통 활과 화살을 우리 전통 활과 화살과 랑그차원의 등가적 번역작업을 하는 것 또한 전통문화콘텐츠를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다. 아래는 유럽 전통 활인 장궁의 모양과 부위 명칭을 담은 그림이다.

15) 출처 사단법인 대한국궁문화협회 (<http://www.korea-bow.or.kr/>)

〈그림 2〉 유럽 전통 활(장궁)의 각 부위 영어명칭¹⁶⁾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 전통 활인 장궁은 모양과 명칭이 매우 단순하다. 유럽 전통 활은 영국 및 유럽대륙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해 왔다. 영국 로빈후드의 활과 스위스 윌리엄 텔의 활은 전부 전통 활인 장궁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궁의 명칭은 nock, belly, back, string, grip과 같이 5가지 정도이다.

아시아 대륙 활과는 다르게 서양 전통 활에는 고자나 절피, 빨아과 같은 활의 성능을 강조하거나 또는 재료에서 기원한 명칭이 없다. 고자는 오직 아시아 대륙 활에만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원래 유목민족이었던 아시아인들이 말을 타면서도 화살을 안정적으로 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다(Dekker 2008: 99). 그 반면에 유럽의 장궁은 말을 타며 쏘기에는 길이가 너무 길어 부적합하여, 유럽에서 궁사들은 실제로 기병이 아닌 보병이었다. 따라서 기마병을 위해 만들어진 고자가 발달할 여지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 전통 활은 본래 기병용으로 개량 및 발달 되었고, 유럽 전통장궁은 보병용으로 사용되어졌던 실제로 서로가 다른 종류의 활이라고 볼 수 있다.

16) 출처 Green Hollow Bowmen (<http://www.greenhollowbowmen.co.uk/longbow.htm>)

〈그림 3〉 기병용으로 제작된 아시아 대륙 활과 보병용으로 제작된 유럽 장궁¹⁷⁾



2.1. 2 세계 전통 화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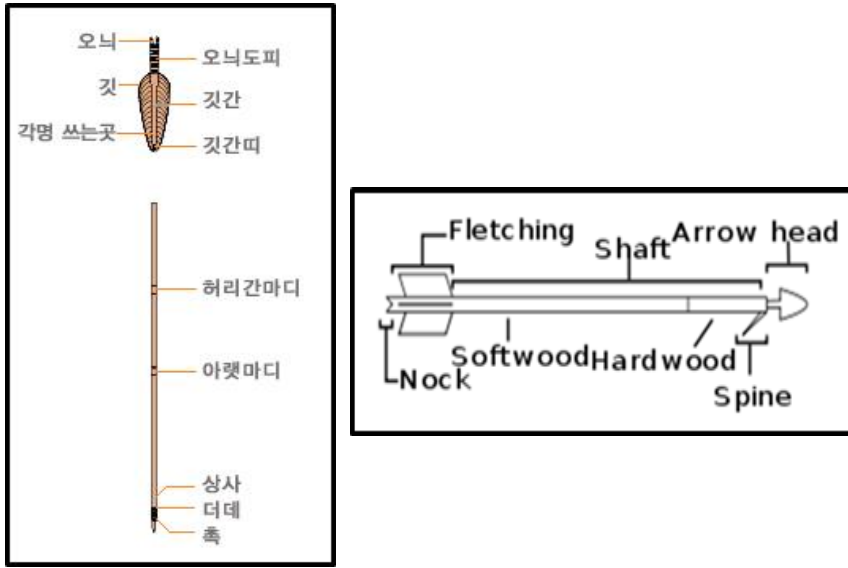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활의 각 부위 명칭에 대한 오역의 사례 및 오류분석은 크게 아시아 대륙 활과 서양 전통 활인 장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대륙 활을 대표하여, 한국 전통 활의 각 부위 명칭에 대한 한영/영한 번역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한국 전통 활을 사용한 이유는 모든 아시아 대륙 활들 중에서 한국 전통 활만큼 구체적인 각 부위 명칭이 붙여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살의 경우에는 활과는 달리 아시아 대륙 화살과 유럽 전통 화살로 구분하여 번역의 오류 사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기가 어렵다. 그 이유로는 아시아 대륙 활을 사용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화살만큼은 재료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화살은 대나무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한국 및 일본의 화살을 제외하고 그 밖의 아시아 화살은 유럽 화살과 명칭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일본) 전통 화살과 외국을 대표하여 영국 전통 화살의 각 부위 명칭을 한영/영한 번역의 차원에서 대조 비교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한국 전통 화살의 각 부위 명칭이다.

17) 출처 미상

〈그림 4〉 한국 전통 화살과 외국 화살의 각 부위 한영/영한 번역 명칭 비교¹⁸⁾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전통 화살은 중간에 두 개의 마디가 있다. 이것은 세 마디짜리 대나무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일본과 중국 남부를 제외한 외국에서는 대나무가 자라지 않으므로, 주목나무나 물푸레나무를 다듬어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재료의 차이에서 기원한 명칭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서양의 화살에서는 오늬를 nock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앞에서 활의 심고를 nock이라고 번역한 것은 요역이라고 지적하였듯이, 서양 활에도 nock이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다. 즉 서양 활과 화살에는 nock라 공통적으로 불리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둘 다 시위를 거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활에서의 nock은 활대의 양 끝부분에 시위를 걸기위해 움푹 팬 부분이며, 화살에서의 nock은 화살의 끝부분에 시위를 걸기위해 움푹 팬 부분이다. 이것은 nock이라는 영어단어의 원래 뜻이 움푹 팬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국 전통 화살의 영한/한영 번역 비교표이다.

18) 영문 화살명칭 출처 www.wikipedia.com

〈표 7〉 한국 전통 화살과 서양 화살의 한영/영한 번역 비교 및 새로운 번역 도표

한국어	영 어	새로운 영한/한영번역
촉	arrow head	동일
더데	spine	동일
상사	없음	tightener
아랫마디	없음	lower joint
허리간마디	없음	center joint
깃간띠	없음	fletching tie
각명쓰는곳	없음	signature spot
깃간	없음	feather valley
깃	fletching / feather	동일
오늬도피	없음	nock cover/peach bark
오늬	nock	동일
없음	hardwood	센 허리
없음	softwood	연한 허리
허리	shaft	동일

상기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전통 화살과 외국 화살의 각 부위 명칭들 중 등가적 번역이 가능한 곳은 오직 촉 / arrowhead, 더데 / spine, 깃 / fletching(feather), 오늬 / nock, 허리 / shaft와 같이 5군데뿐이다¹⁹⁾. 흥미로운 것은 한국 전통 화살에서는 아랫마디, 허리간마디와 같이 선에 해당하는 마디를 강조하고 서양 활에서는 마디 사이의 공간인 hardwood, softwood와 같이 면에 해당하는 허리를 강조하여 각각 그곳에 해당되는 용어가 발달 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명칭 중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각명쓰는곳, 오늬도피나 상사와 같이 서양 화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각명쓰는곳이란 화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해 깃간의 한 부분에 주인이름을 쓰는 곳이다. 오늬도피란 오늬를 보호하기 위하여 씌우는 복숭아나무에서 채취한 얇은 껍질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능성에 중점을 둔다면, nock cover라고 번역이 가능하며, 재료에 중점을 둔다면 peach bark이라고 할 수 있다. 상사는 서양 화살의 hardwood 역할을 하는 부위로서 화살이 목표물에 적중 했을

19) 더데는 spine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spine은 토고리, 상사, 더데의 부위와 기능이 합쳐진 부분이다.

때, 화살촉이 충격에 의해 뒤로 밀리지 않고 목표물에 제대로 꽂힐 수 있도록 화살대 속에 들어가 박혀있는 화살촉 부분을 강하게 묶어주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화살에서도 전통 한국화살과 외국의 화살 사이에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살의 경우는 화살촉의 모양에 따라서 화살의 이름이 특별히 불러 지기도 한다. 한 가지 예로서 한국과 몽골 및 중국에만 존재하는 효시(嘯矢)²⁰⁾가 그것이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화살촉을 짐승의 뼈나 목재로 만들어 거기에 구멍을 내서 날아갈 때 강한 바람 가르는 소리를 내도록 만든 화살인데, 마치 커다란 휘파람 소리가 난다고 하여 영어로는 whistling arrow라고 한다.

〈그림 5〉 Whistling arrow로 번역되는 효시(嘯矢)²¹⁾



2.3 현대영미영상문학 속에서 왜곡된 전통 활과 화살의 문화콘텐츠

1894년 뤼미에르(Auguste et Louis Lumiere)형제가 시네마토그래피(Cinematography)로 특허를 받은 이후 영상문학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1895년 두 형제는 「뤼미에르 공장의 출구」, 「기차의 도착」

20) 어떤 사건이 시작되는 계기를 뜻하는 효시는 바로 화살명인 효시(嘯矢)에서 기원한 것이다.

21) 출처 www.arico-aris.com

과 같은 인류 최초의 영화 10편을 출품 했는데, 이들 작품의 특징은 전부 무성 영화였다. 이 작품들 속에서 음향 및 음성에 의해 전달되는 대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매우 열광하였으며, 작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영상문학은 무성영화이든 유성영화이든 감독(Director)에 의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향(Direction)으로 의도적으로 편집된 결과물로서 관객들에게 선보이기 때문이다. 관객들이 영화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할 때는 오직 텍스트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에도 이후 무성영화 장르에서 세계적인 대작들이 생산되었다. 소비에트 출신 에이젠슈타인(Sergei M. Eisenstein, 1898-1948)감독의 「전함 포템킨」(The Battleship Potyomkin, 1925)이나 찰리 채플린(Charles Spencer Chaplin, 1889-1997)이 감독, 주연한 「The Kid」(1921), 「Modern Times」(1936)와 같은 채플린 시리즈는 배우들이 직접 발성하는 대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배우들의 몸동작과 상황의 흐름만을 가지고도 현대에도 비평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대는 영상의 시대이며 무성영화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화 속의 장면들은 함께 결들여진 번역 자막보다 더 강력한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러한 영상문학의 시대에 텍스트는 영상이 보여주는 상황에 따라서 거의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사실 영상자체가 이미 감독을 비롯한 수많은 스태프들의 편집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계속되는 영상물은 그 자체로서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조작된 일종의 움직이는 상형문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장면 속 상황에 따라서 영화는 진정한 현대판 상형문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합성 외에는 텍스트가 거의 필요 없는 전쟁장면은 더욱 그러한데, 이러한 영상문학작품 속의 전쟁 장면에서 종종 등장하는 활쏘기는 청중들에게 상당한 부분이 오역되고 왜곡된 문화형태로 전달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전통 활쏘기의 다양한 역사 문화적 차이점들을 전혀 도외시 한 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을 이용한 흥미위주의 장면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세계적인 영상문학작품인 아바타와 반지의 제왕에서 전통 활쏘기의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서양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오역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세계 최고의 흥행실적을 올린 제임스 캐머런(James Cameron, 1954-현재) 감독의 「아바타」(Avatar, 2009)의 장면 중에는 기계문명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의 별을 착취하러 온 지구인들에 대항하는 나비(Navi)족들이 그들의 전통 활과 화살로 대항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청중들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자인 지구인들의 문명과는 상대가 될 수 없는 열등한 문명의 상징인 전통 활과 화살을 접하게 된다.

이런 장면은 사실 미국의 역사 속에서 백인 이주자들에 의해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이미 수없이 자행되었던 실제 사건들을 패러디 한 것에 불과하다. 백인들의 총과 대포 앞에서 전통 활과 화살로 대항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더 없이 원시적이며 열등해 보였고, 그 속에서 무참히 짓밟혀 갈 수 밖에 없었다. 20세기 초반까지도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손에 들린 활과 화살은 곧 그들의 열등하고 야만적인(savagery) 문화코드를 상징하였다(Bohr 2008: 228).

〈그림 6〉 영화 아바타에서 지구인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는 나비족 여전사²²⁾



위의 사진 속에서 나비족 추장의 딸이자 여전사인 주인공이 활시위(string)를 당기고 있는 모습은 부드러운 이미지의 여성적 매력과 더하여져 신비한 느낌을 준다. 마치 활의 곡면과 시위의 탄성처럼 부드러움을 주는 여인이 상대하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치명적인 화살의 관통력 또한 갖고 있음을

22) 출처 영화 「아바타」(Avatar)

보여주는 것만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의 대표적 문화 코드인 가늘게 여러 갈래로 뿔어져 내린 까만 고수머리와 동물적인 코 모양 및 노란 눈동자 색 깔과 작은 수정체, 그리고 기다란 꼬리는 과거에 백인들이 노예로 부렸던 흑인들의 이미지와 반인반수(the half human / the subhuman)라고 비하했던 아메리칸 인디언의 이미지를 여성이라는 남성중심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왔던 성(gender)에 결합시킨 모습이다. 거기에 점목된 활과 화살의 이미지는 엄청난 성능의 화기와 비행기로 공격해 오는 지구인들과 비하여 매우 원시적이며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비쳐진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대륙 활의 역사 문화적 전통에 대한 심각한 오역이 또 다른 세계적 작품 속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영국의 작가인 톨킨스(J.R.R.Tolkeins, 1892-1973)의 거작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 trilogy²³⁾, 1937-1949)은 뉴질랜드 출신의 영화감독인 피터 잭슨(Peter Jackson, 1961-현재)에 의해서 영화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 trilogy)으로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조앤 롤링(Joan Rowling, 1965-현재)의 『해리 포터』 시리즈(Harry Potter series)와 더불어, 2000년대 영문판타지 문학(English Fantasy Literature)의 열풍을 전 세계에 휘몰아치게 하는 파격적인 계기를 가져왔다.

영화판 「반지의 제왕」은 시작부터 수천 년 전에 벌어진 사우론의 악의 세력과 인간과 엘프(elf) 연합군의 선의 세력 간의 대 전쟁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전쟁의 개시를 알리는 동작으로서 일렬로 늘어서 있는 양편의 궁수들이 일제히 상대진영을 향해 활을 쏘아대는 것에서부터 비롯될 정도로 활쏘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 된다. 영국 켄트 출신의 배우인 올랜도 블룸(Orlando Bloom)은 그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배역 중의 하나를 맡았다. 그가 맡은 배역은 엘프 왕자인 레골라스(Legolas)로서 전체 3부작에 걸쳐서 긴 금발머리와 엘프족 전사복장을 한 채 등에는 화살통을 메고 악의 군대인 오크(Orcs) 무리에 수 없이 화살을 날리는 장면을 연출한다. 그가 지닌 활은 충분히 크고 견고해 보이며, 거기서 발사된 두껍고 기다란 화살은 마치 갑옷이라도 뚫을 것처럼 바람을 힘차게 가르며 적들에게 적중되고, 화살에 맞은 악의 군대는 뒤로 나자빠지거나 거대

23) 원작소설 『반지의 제왕』은 원래 단행본으로 출판되려 했으나 세계2차 대전 이후 영국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1954-55년에 걸쳐 3부작으로 분리되어 각각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다.

한 악마 코끼리(Oliphant)의 등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버린다.

바람을 가로지르며 날쌔게 뛰어 다니면서 악의 군대를 향해 사방으로 활을 쏘아대는 긴 금발머리의 젊은 엘프 왕자의 매력적인 모습에 전 세계의 젊은 영화 팬들은 한껏 매료되었다. 그의 이러한 신비하고도 세련된 모습은 전 세계 영화 팬들로 하여금 깊은 인상을 남기며 「반지의 제왕」에 더 한껏 빠져 들게 하였다.

그런데 레골라스가 사용하는 활과 화살의 모양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악의 세력인 오크 군대가 사용하는 것과 모양과 종류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그의 활은 장궁(long bow)으로서 영국을 대표하는 전통적 앵글로 색슨 계통의 활이라면, 오크 군대가 사용하는 활은 아시아의 전통 활인 역궁(recurved bow)²⁴⁾을 원형으로 한 것이다. 영화 속에서 레골라스가 사용하는 장궁은 초승달처럼 길고 가늘게 생겼는가 하면, 오크 군대의 활은 전체 길이가 보다 짧으면서도 활대가 몇 번의 곡면을 형성하는 레골라스의 것과는 다른 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레골라스가 영국의 전통 장궁을 사용하는 모습²⁵⁾



인도게르만어에서 오크(orc)라는 단어는 원래 이방인 또는 외부인을 의미하는데 특히 유럽을 정복했던 흉노족과 몽골군을 지칭했던 단어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반지의 제왕」에서는 악마의 족속 또는 그러한 족속으로 구

24) 본문 p. 6 참조

25) 출처 영화 「반지의 제왕」

성된 군대를 지칭하며, 또한 아시아에서 기원한 합성궁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역되고 왜곡된 아시아 대륙 활의 전통과 역사를 보여 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인들은 4세기와 13세기에 아시아에서 밀고 들어온 흉노족²⁶⁾과 몽골족에 의해서 정벌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들은 얼굴생김새와 체구가 당시의 유럽인들과는 판이하게 달라서 오크라 불리게 되었다. 흉노족과 몽골족 전사들은 전부 기마병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달리는 말위에서 활쏘기에 매우 능하였다.

〈그림 8〉 오크라 불렀던 아틸라 초상²⁷⁾ 및 인형²⁸⁾ 역궁을 사용한 게르만족 정벌²⁹⁾



그 당시에 흉노와 몽골군 전 유럽을 커다란 공포에 떨게 하며 악마의 군대라 불리며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로 불렸었다. 이러한 흉노군과 몽골군의 유럽 정벌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바로 신속한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달리며 쏘는 아시아 유목민 전통의 활쏘기에 있었다. 길어서 속사 및 연속사가 느린 장궁에 비하여 작고도 날렵하며 3가지 이상의 재료를 붙여 만든 합성궁인 역궁은 강도와 살상력이 훨씬 우수했다.

26) 훈족 : 훈족은 원래 아시아 몽골계통의 부족으로 중국에서는 흉노족이라 불렀다. 대장인 아틸라가 중심이 되어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게르만족을 서남쪽으로 밀어내고 다뉴브강변에 헝가리를 건설하였다.

27) 원작 김진삼 화백

28) 출처 미국 History Channel, 역궁을 든 아틸라 인형

29) 출처 미상

〈그림 9〉 칭기즈칸 초상³⁰⁾〈그림 10〉 역궁으로 유럽 연합군을 패배시키는 몽골군³¹⁾

3. 결론

지금까지 세계 전통 활과 화살과 관련된 각 부위 명칭에 대한 영한/한영 번역의 오류 및 오역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탈구조주의적 번역방법을 제시하였다. 탈구조주의적 방법이란 각 민족 고유의 차이점을 최대한 번역작업에서 살려주는 파룰 중심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형식주의에서 유래된 구조주의적 번역방법으로는 랑그만을 중시한 나머지 그 언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 문화적 전통을 전혀 살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와 문화를 번역한다는 것은 실용문을 번역하는 방식인 랑그 중심적 작업으로는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 낼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현대영미문학 중 영화장르에 나타난 세계 전통 활쏘기와 아시아 대륙활인 합성궁이 세계적 작품인 「아바타」와 「반지의 제왕」 전쟁장면 속에서 얼마나 오역되고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아시아와 한국의 청중들이 이러한 영상작품들을 세계인들과 함께 즐겨 감상한다는 것은 훌륭한 작품을 감상하고자 하는 자연스런 발로 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적 작품들 속에는 아시아 전통과 문화를 대표하는 아시아 대륙 활을 악마의 도구로 폄훼하고 오역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이보다 성능이 못한

30) 출처 미상

31) 출처 미상

것으로 이미 오래전에 입증된 유럽 전통 장궁을 마치 선의 세력이 사용하는 신비하고 우수한 무기로 그리고 있다는 것은 오리엔탈리즘 속에서 동양문화에 대한 편견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서양인들의 발상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세계 각국의 활과 화살이 전부 똑같은 모양의 활과 화살로 보일지 모르지만, 특히 아시아 전통 활과 화살은 그것들을 사용해 왔던 아시아 모든 민족들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그들이 쌓아온 수천 년 동안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의 자부심이 배어 있다. 우리민족 또한 고대로부터 큰 활을 쏘는 민족의 의미를 지닌 동이족이라고 불렸다는 것에 대해 민족적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신라시대 왕을 지칭했던 용어인 마립간(麻立干)은 몽골어의 메르겐(Mergen)과 어원을 같이 하는데 이는 활을 잘 쏘는 종족의 의미로 해석(바투르 2010)된다. 이와 같이 활과 화살은 우리민족에게도 역사적 전통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문화콘텐츠이다.

이와 같이 세계전통 활과 화살은 단지 지나간 과거의 유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닌 중석기시대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사용해 왔던 인류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분야에서 매력적인 전통문화콘텐츠로서 활용될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민족 전통의 활과 화살이 글로벌 문화콘텐츠 속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한/한영 번역을 위한 지식과 용어정립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라는 것은 실용적이며 일반적 의미만을 전달해 주는 단순한 텍스트의 형태가 아닌 그 속에 역사 문화적 콘텍스트가 담겨져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텍스트만을 위한 번역에 그치지 않고 그 텍스트에 담긴 문화적 콘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번역을 본 논문에서는 함께 논의해 보았다.

참고문헌

- 김기훈 (2007) 『세계 전통 활쏘기의 현황과 과제』, 청주: 국궁문화연구회.
 대한국궁문화협회 (2010) <http://www.korea-bow.or.kr>, 서울: 대한국궁문화협회.
 바투르 자미안 (2010) <http://news.chosun.com/site/data/2010101301693.html>, 서울: 조선일보.

- 유세현 (2008) 『세계전통 활·화살 어제와 오늘』, 파주: 영집궁시박물관.
- 이노신 옮김 (2009) 『세계 전통 활과 화살의 구조, 재료 및 제작방법 고찰』, 천안: 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Jan Sachers, Hillary Greenland Etc. Eds. (2009) *Study of Structures, Materials & Manufacturing Processes of World Traditional Bows and Arrows.*)
- 이지연 (2010) 「역(逆)번역을 통한 한영번역의 훈련과 평가」, 『번역학연구』 11(1): 85-105.
- 최희섭 (2010)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국보명칭 영문 번역 고찰」, 『번역학연구』 11(1): 271-291.
- Bohr, Roland (2008) ‘Arrows into Ploughshares: Symbolism of Plains Indian Archery in US Citizenship Bestowals on the Northern Plain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orld Traditional Archery : Historical Analysis and Future Orientation*, 219-223, Cheonan: The National Council of Archery for All.
- Cameron, James (2009) *Avatar*. New York: Fox.
- Dekker, Peter (2008) ‘Rediscovering Manchu Archery’, *World Traditional Archery : Historical Analysis and Future Orientation*, 97-111, Cheonan: The National Council of Archery for All.
- Derrida, Jacques (1997) *Of Grammatology*, London and Baltimore: Johns Hopkins UP.
- Farrell, Jack (2009) “Bow Construction in Central Asia.” *Study of Structures, Materials & Manufacturing Processes of World Traditional Bows and Arrows*, 57-88, Cheonan: The National Council of Archery for All.
- Green Hollow Bowmen. <http://www.greenhollowbowmen.co.uk/longbow.htm>, London.
- Jameson, Fredric (1981)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Ithaca and New York: Cornell UP.
- Nam, Won Jun (2008) ‘How Students Translate Culture-specific Items: An Analysis of Student Translations &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9(3): 151-75.

- Saussure, Ferdinand (2000)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Books.
- Williams, Raymond (1983)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P.

[Abstract]

**A Post-Structural Translation Approach of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Analysis of Mistranslations of Traditional Archery in Texts and Films,
and Their Alternatives**

Lee, Noh-shin
(Hoseo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differences in correctness and appropriateness between langue-based translation and parole-based translation in translating certain texts that contain thousands of years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such as those found in the world of traditional archery. In this case,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unlike practical sentences such as those contained in manuals, in which langue takes a key role to support the general meaning of the language in translation, only parole based translation accurately present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that each participant has developed with respect to the signifiers, in this case the bow and arrow.

In addition, this article examines one contemporary literary genre - film - as a type of a pictogram, the message of which is edited and invented by the director and the movie staff in relation to battle scenes in which there are only a few words, and in which, instead, the actors and actresses mostly present a variety of fighting actions to the audiences. Through this, this article discusses how Western films mistranslate and misinterpret the world of traditional archery and Asian traditional archery with prejudices about Oriental culture.

In conclusion, this article examines how accurate translating work on the traditional bow and arrows is much different from that done using a purely

practical approach. The parole-based translation suggests a post-structural approach in translating culture, tradition and history. And, in this way, the final outcomes of the translation will be much more appropriate.

▶ Key Words: flangue, parole, post-structuralism, structure, text world traditional archery

이노신

호서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josh21@hoseo.edu

관심분야: 영미소설, 번역비평 및 평가, 문학/문화비평, 영어교수법, 스토리텔링

논문투고일: 2010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0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30일